

모든 종교계가 아픔을 함께 하면서
희생자가 밝은 빛을 향해 나가기를
기원하고 있습니다.

앞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지혜
를 화합으로 모으고, 서로를 위로하는
너그러움으로 아픔에 있는 많은 분들
이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되찾을 수
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사회의 아픔을 공유하고, 우리의 문제
들을 반성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은
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.

관행이 아니라 올바름과 소신으로 일
하는 사회가 되도록 강력히 개선해
주시기를 바라며, 이는 국민의 행복과
나라의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이
기에 종교계 역시 적극 협력하면서
노력할 것입니다.